

# 오바마시 아노 체험민박조합의 활동에 대해

후쿠이현 오바마시



블루파크 아노



도미 손질

[상황(배경, 목적 등)]

와카사만의 중서부에 위치해 있는 소규모 마을인 오바마시 아노는 양식이 활발한 지역이다. 어업과 민박업을 겸한 “어가민박”이 많은데, 직접 키운 다양한 어류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다. 1990년대까지는 순조롭게 이용객이 증가했었으나, 레저의 다양화 등으로 인해 관광객 수가 감소해 민박을 폐업하는 곳이 점점 증가했다. 민박업은 봄가을이 비수기이기 때문에 이 계절에 많이 실시되는 초등·중학교의 체험학습(교육여행)에 주목하여 방문객을 유치함으로써 숙박객 증가와 민박 경영의 안정화를 꾀했다.

[내용(사업 개요 등)]

① 낚시터에서 도미 잡기, ② 그 도미를 스스로 손질하기, ③ 조리한 도미 먹기를 일련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낚시와 손질의 즐거움과 어려움을 느끼고 나아가 생명을 먹는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깨닫는다.

[효과(특징, 선진성, 향후 전개 등)]

정부보다도 먼저 식생활을 통한 지역 정비와 식생활교육을 위해 노력해 온 오바마시는 식생활교육 투어리즘의 콘셉트를 실현하는 선진 사례이다. 앞으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시대의 추세라고도 할 수 있는 외국인 관광객 수용 태세를 정비해 나가고자 한다.